

天然가스의 地政学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

가스市場의 諸變數

장래 에너지공급에 있어서 천연가스의 중요성은 지역별로 크게 다를 것이며 점차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각 생산국이나 소비국의 地理, 金融, 政治的 민감성이 國際가스市場 전망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이 될 것이라고 최근에 열린 두 국제회의에서 전문가들이 밝혔다.

현재와 장래의 천연가스 需給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83년 9월과 10월 北美에서 열린 두 국제회의에 모인 수백명의 생산업자, 수송업자, 경제학자,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은 참석자 수 만큼이나 많은 경제적 관심사들을 가지고 각자의 경험과 전망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실, 變數들 마저도 여러 變數를 가지고 있다. 일부 주요석유소비국들은 일부 주요석유생산국들과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를 풍부히 보유하고 있다. 세계최대 석유생산국인 소련은 세계최대 천연가스매장량을 가진 나라이다. 수요와 공급만이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 지역별 원가 및 부존형태, 국내 및 수출시장의 하부시설, 각국의 경제정책 및 대외정책 등 모두가 시장인식에 고려되는 요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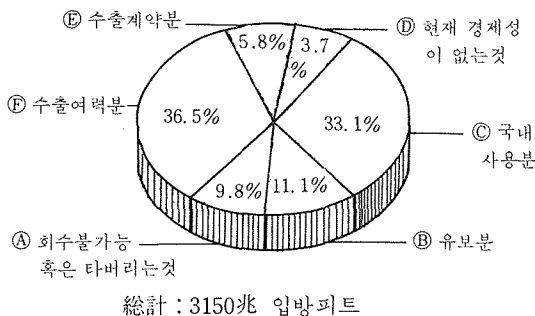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절실한 문제들의 일부를 조망해 보기 위해 천연가스에 관한 두 개의 종합적인 세미나의 내용을 요약한다.

9월 26일에 캐나다 에너지조사회(CERI)와 칼게어리 상업회의소가 공동주관한 국제가스시장회의

에는 4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10월 5~6일에 美国 보울더에 있는 콜로라도대학교에서 국제에너지 및 경제개발조사센터(ICEED)가 개최한 제10차 국제에너지회의에는 200여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제무역상 천연가스의 경제, 정치적 문제점들을 다루었다. 이 제10차 국제에너지 회의에 앞서 아시아 에너지수급문제에 관한 이틀간의 세미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역시 주로 천연가스가 주제로 다루어졌다.

〈表-1〉 世界天然가스確認埋藏量

(1982. 12. 31현재)



世界가스市場展望

〈表-1〉은 1982년 현재 확인된 세계 천연가스 매장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 출처인 美国, 마사추세츠州 보스턴 소재의 Jensen and Associates社 회장인 Jame Jensen은 칼게어리 및 보울더의 양쪽 會議에서 모두 이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Energy Détente 誌와의 인터뷰에서는 캐나다가 천연가스 매장現況을 몇 가지로 구분짓고, 그 중 輸出余力量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발명해 낸 나라이며,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개념을 전 세계에 확대, 적용해 왔다고 말했다.

〈表-1〉에서 사용된 Jensen의 매장량현황 구분의 내용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④는 원유생산에서 수반되는 가스를 포함해서,回收하거나 상업화시키기에는 양이 너무 적거나 지리적으로 너무 먼 것들을 포함한다.

⑤는 油田 중의 가스층에 있는, 생산량이 무시될 정도의 原油수반가스나, 원유생산을 위한 貯油 圧力의 유지를 위해 再注入된 가스를 의미한다.

⑥는 가스保有국의 国内수요予想分을 말하며, 한국가마다 현 소비추세로 30년 사용분을 기준하였다.

⑦는 대규모이고 잠재적으로 상업적이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⑧는 국제무역으로 계약된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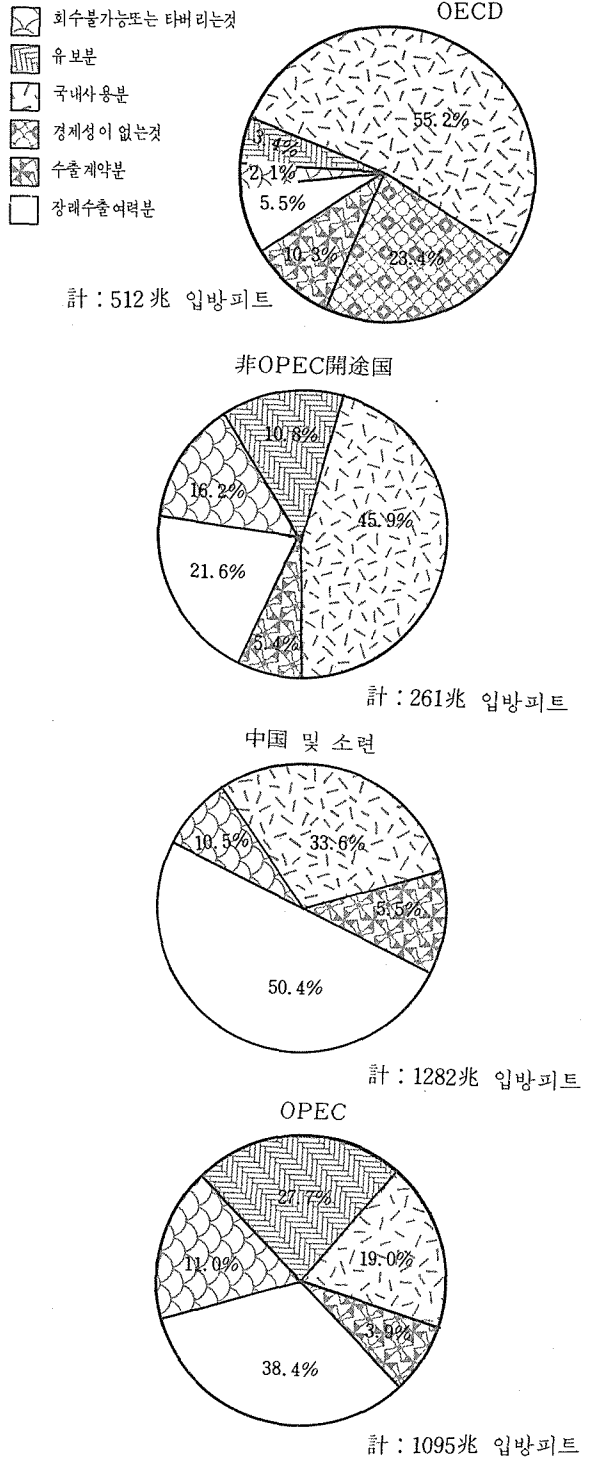
⑨는 장래 국제무역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表-2〉는 위에서 정의된 매장현황 분류를 경제그룹별로 나타내주고 있다. 「현재 경제성이 없는 매장분」은 OECD에 속하는 국가들에서만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할 것이며, 「유보매장분」이 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OPEC회원국이며, 그것은 국내시장사용분보다 더 많다. OPEC 회원국의 유보매장분과 회수 불가능 또는 타버리는 매장분이 얼마나 되는나하는 것은, 이것들이 언젠가는 국내수요에 충당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들 산유국의 原油輸出余力分 減少与否를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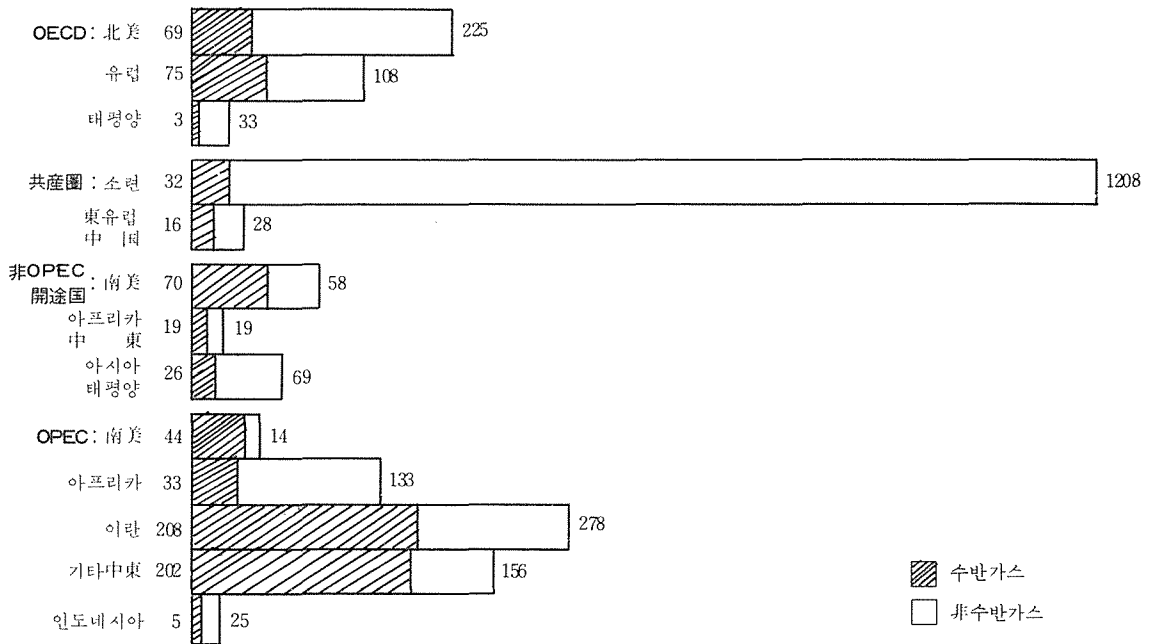
OPEC제국 중에서 이란과 카타르는 천연가스의 잠재적인 최대수출가능국이다. OPEC밖의 기타 개도국 중에서 멕시코가 최대로 수출여력이 있는 국가이지만, 매장현황 통계는 수정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석유하면 중동인 것처럼 천연가스하면 소련인데, 소련의 천연가스는 주로 원유생산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며 유전에서 석유에 용해된 가스도 아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대의 매장량을 가진 나라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로서 각각 비수반가스를 80%, 15%씩 보유하고 있다.

〈表-2〉 經濟그룹別 天然가스埋藏現況 (1982. 12. 31현재)



〈表-3〉 經濟그룹別 世界천연가스埋藏現況
 -수반가스 對 非수반가스- (단위:兆입방피트, 1982. 12. 31현재)



(자료) Jensen Associates, Inc.

3 개의 北美市場

캐나다의 경우에 천연가스 매장량 중 약 절반가량은 국내사용분이고, 23%는 현재 경제성이 없는 것이며, 美國에서와 같이, 극히 적은 분량만이 회수불가능하거나 타버리는 것 혹은 원유생산시에 유보되는 것이다.

美國은 대부분의 매장량이 국내사용분이고 日本에 수출하는 극소량의 액화천연가스외에는 가스輸出이란 없다. 경제성이 없는 유일한 가스는 알라스카의 노오드 슬로우프 유전지대에 있는 것이다.

멕시코에는 경제성이 없는 매장분은 없고, 3.2% 정도가 회수불가능하거나 타버리는 것이며, 55%가 국내사용분이며, 약 2.7%가 美國에의 수출계약분이며, 35%가 유보된 것이고 따라서 3.7%만이 장래 수출여력분으로 남게 된다.

美國은, 모두 미국에 대한 가스販賣에 관심을 갖고 있는 두 천연가스生産國 사이에 끼여 있는 지리적 위치 관계로 유리하게 이득을 얻고 있다. 美國

은 1986년 이후에는 가스余分이 사라지고 인근 두 나라에 판매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캐나다는 美國가스시장에서 판매비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1983년도에 3번 가격을 조정하였는데, 11월 1일 현재로 美國輸入業者들은, 만일 계약물량의 50%를 인수하면 1천입방피트당 美貨 4.40달러 대신 物量 인센티브價格인 3.40달러라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을 땐 후에 價格差가 있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Energy Détente誌에서〉

